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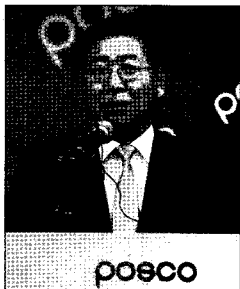


회원사 소식



☐ 포스코, 정준양 회장 체제 출범

제41기 정기주총 및 이사회 개최...열린경영, 창조경영, 환경경영 적극 실천 천명



포스코 정준양 회장 체제가 출범했다. 포스코는 2월 2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준양 포스코건설 사장을 제 7대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정준양 회장은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현장 전문가로서 파이넥스의 상용화를 주도하는 등 포스코 고유의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직후 포항 본사로 내려가 취임식을 가진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선적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나아가 글로벌 성장을 가시화하면서 시장 지향 및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외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철강 뿐만 아니라 환경 면에서도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 소통과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열린경영', 포스코 고유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경영', 에너지 다소비,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이라는 철강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환경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포스코는 전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시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미래성장전략실과 녹색성장정책을 총괄하는 녹색성장추진사무국을 CEO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애경그룹, 백화점·삼성플라자 유통부문 BI 'AK' 통합

유통사업 그룹내 주요 성장동력 설정...2013년 매출 3조 8,000억원 달성 계획



애경그룹은 애경백화점·삼성플라자 등으로 이뤄져 있던 유통부문 BI를 'AK'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경그룹은 유통사업을 그룹 내 주요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13년에는 매출 3조 8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애경백화점과 삼성플라자의 새 이름으로 선정된 'AK플라자' (AK PLAZA)는 애경백화점과 삼성플라자에서 딴 이름으로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백화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BI 콘셉트는 세련된 도시감각의 고품격 문화가치를 표방하는 넥스트 프리미엄으로서 슬로건은 'Art your life', '새로운 생활의 즐거움'으로 정했다.

애경백화점 구로본점과 수원점, 삼성플라자, 오는 4월 개점 예정인 평택점은 모두 3월 'AK Plaza'로 통합된다.

애경그룹 유통부문은 종합유통그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으로 포인트 적립카드를 통합하는 한편, 2013년까지 수도권 내에 AK플라자 점포 수를 7개로 늘릴 계획이다.

□ KT 이사회, 합병 본격 스타트

KTF와 합병 후 유무선통합경영체제에 맞게 정관 변경

KT 이사회는 2월 24일, KTF와의 합병 이후 유무선통합경영체제에 대비해 사업목적 추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TF와의 합병 및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3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관 변경(안)은 무선통신사업과 함께 그린IT사업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 사항에 추가했으며, 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던 집행임원의 구분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지분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조정했다.

목적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이유는 유휴 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을 상쇄하고, 보유 자산의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KT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통신 기업에게도 향후 이산화탄소 저감 의무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KT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은 국내 IT산업계에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사장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All New KT 경영을 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합병 후의 KT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녹색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진정한 국민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증권 · SK증권 '2008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선정

증권 · 선물시장 관련 법규 준수와 불공정거래 예방, 내부통제에 모범



삼성증권과 SK증권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증권 · 선물 시장 관련 법규 준수와 불공정거래 예방, 내부통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2개 회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08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으로 선정되어 2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삼성증권은 '고객중심 경영의 체질화'를 2008년 경영방침으로 표명하면서 경영진의 준법경영의지를 경영이념에 충실히 반영하고, 회사 전반의 준법감시활동에 대한 경영진 보고를 월례화 하는 등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총 124회, 3,385명) 및 준법감시담당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총 30회, 594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범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보여왔다.

SK증권은 전 직원의 직무윤리실천 서약을 통해 직무윤리에 대한 책임감 제고 및 윤리실천력 강화에 노력하고,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관련 준법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표준 조치기준보다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보였다.

한편,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은 선정 후 2년 동안 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조치사유 발생시 한 단계 감경해택이 부여된다.



▣ 전경련, 제32대 회장으로 조석래 회장 재선임

제48회 전경련 정기총회 개최...경제위기 타개에 주력하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월 19일 프라자호텔에서 '제48회 전경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석래 현 회장을 제32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조석래 회장의 재선임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경련이 경제계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경제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다"는 취임 소감과 함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살려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GS그룹 허창수 회장, STX그룹 강덕수 회장 등 2명이 신임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전경련 28대 회장 역임)이 전경련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한편, 2008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전경련은 경제활성화 대책,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해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규제개혁, 노사관계 개선 등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경제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민간경제협력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SKC,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자율준수관리자로 최윤환 기업문화실장 선임

SKC는 2월 6일, 공정거래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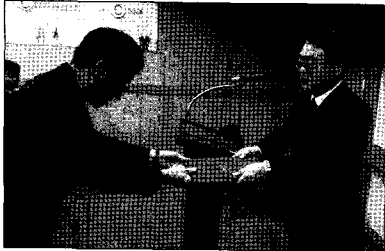
SKC는 CP 도입을 위해 지난 해 8월부터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방안 작성 △ 대표이사 자율준수의지 천명 △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등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 들어 △ 공정거래 위반 임직원 제재규정 제정 △ 사내 그룹웨어 공정거래 자료실 구축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을 마련했다.

SKC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최윤환 기업문화실장(상무)을 선임하고, 관련부서별 담당자 선임을 통한 상시점검체제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 롯데홈쇼핑,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실행 선포

소비자 '불만 제로'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롯데홈쇼핑이 2월 11일 서울 목동 본사에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실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도입을 권장하는 제도로,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객 입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롯데홈쇼핑 신헌 대표는 이날 선포식에서 고객지원부문장 석락희 이사를 CCMS 자율관리자로, 이흥영 CS혁신팀장을 CCMS 사무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롯데홈쇼핑은 CCMS선포식에 앞서 지난 7월 CCMS 실행구축 TFT를 구성해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전사적인 자율관리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각 부문별로 선정된 CCMS 리더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고객 불만 제로를 위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이 결과,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CS 관련 문의가 10% 가량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CCMS 도입 외에도 '고객 불만 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 고객 문의 및 불만 사항을 최초 응대 상담원이 해결, 처리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 △ 상품 주문 승인과 동시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배송 예정일을 알려주는 '배송알리미 서비스' △ 고객과 관련된 주요 위기를 관련 부서가 신속하게 합동 회의하는 'CS 119'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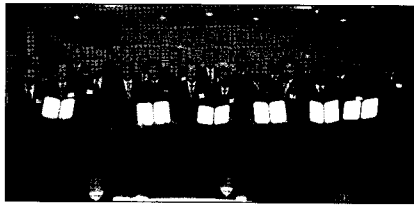
또한 △ 고객 상담 내용을 사내게시판을 통해 공유하는 '고객의 소리'(VOC) 청취 △ 고객의 입장에서 직원이 주문, 배송, 교환, 환불 등 쇼핑의 전 과정을 체험 하는 '직원 쇼핑 체험 행사'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신헌 대표는 이날 선포식에서 "소비자 불만은 사전에 자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롯데홈쇼핑 전 직원은 '고객이 기준'이라는 체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중공업그룹, 중소기업 지원 협약 선포

212개사 협력사 대표와 신년회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 개최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월 21일, 호텔현대울산에서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을 비롯한 현대미포조선 송재병 사장, 현대삼호중공업 황무수 사장,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부회

장, 중소기업중앙회 최범영 부회장, 212개사 협력사 대표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와의 신년회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모(母)기업의 자금과 품질 및 기술, 경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력사의 자금난 개선에 중점을 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업은행과 협력업체 지원 특별 펀드 7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과 연계한 무담보 협력업체 네트워크론을 275억 원에서 1,280억 원까지 증액하고, 모기업이 경영 및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총 2천 350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반기별로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 대금지급 조건을 우대해주던 대상 업체의 수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사급 지원을 현행보다 800억 원 높여 9,87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자재 구매를 대항해 줌으로써 자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그룹은 각종 교육지원을 모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문화시설도 동등하게 이용하는 등 인재 육성,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품질개선지도 및 기술정보를 지원해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고락을 함께 해 온 협력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기업도 함께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도 모기업과 협력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거래관행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이뤄 쌍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지원단 구성해 정책 발굴”

정부정책 이행상황 집중 점검… ‘협동조합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해 조합 활성화 기반 구축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계가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IMF 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전념할 계획이다.

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1월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경제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09년을 ‘협동조합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하여 조합 활성화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과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당면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한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종의 조합설립 등 중소기업 조직화 확대와 공동구매 대행, 자금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추진하고, 협동조합의 업종 그룹별(식품, 화학, 전자, 도·소매업 등) 특성에 맞는 조합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와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1사 1인 채용 캠페인 확산과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확대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위, 전경련과 공동으로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간상생협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대기업의 상생협약 참여 확대, 그리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기문 회장은 “경영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를 살려 내야 하는 것이 기업인에게 주어진 고귀한 소명이다”며 “중앙회는 중소기업에게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파트너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지만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발전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 및 조기 집행,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할증 적용 폐지와 한시적으로 연말결산시 감가상각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하이닉스, 협력업체를 위한 상생사업 적극 추진

‘원천기술 상용화 개발사업’ ‘성능평가 협력사업’ ‘상생보증 프로그램’ 등 추진

하이닉스반도체는 1월 19일 협력업체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정부·대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은행이 1대1의 비율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기관이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전액 보증함으로써 은행이 대출하는 구조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 대표로 현대자동차 및 포스코와 함께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0억 원을 특별 출연했다. 이를 통해 타기업에서 출연한 180억 원과 은행이 출연하는 210억 원 등 420억 원의 기금을 근거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총 7000억 원 상당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금번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정부·은행·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신뢰성 높은 제도적 장치로, 불황을 겪고 있는 협력 업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동성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이닉스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국내 장비 및 재료 협력업체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시설을 제공하고 인증을 해주는 ‘성능평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사업을 통해 총 45개 품목 중 27개 품목에 대해 성능을 인증하는 데 성공하여, 협력업체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이닉스는 또한, 45나노에서 22나노급까지 차세대용 장비의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상용화 개발사업’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8개 품목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3건은 지난해 11월에 기초 평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의 주도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11월에 정부·은행·대기업과 함께 부품소재 협력업체를 위한 무담보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수급기업 투자펀드’에도 20억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기술 로드맵 공유회, 파트너스 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 대기업·협력업체 간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관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두산, 롯데와 5,030억 원에 주류사업 매각 계약

차입금 감축 및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지주회사 완성 예상

(주)두산은 1월 6일, (주)롯데주류BG와 5,030억 원에 주류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회사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황 롯데 사장, 강태순 두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3주 동안의 실사 작업을 거쳐 2월 중에 주류사업매각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종업원 전원을 고용 승계하고 향후 고용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두산은 이번 매각대금으로 3,203억 원의 매각이익을 올리게 됐는데, 매각 대금을 차입금 감축 및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매각으로 재무구조가 순현금(Net Cash Position)을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되며 순 현금기준(차입금 상환 시) 부채비율이 67%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은 지난 해 12월 19일 거래를 종결한 테크팩 사업부문 매각에 이어 주류사업 매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과거 외환위기 시절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두산은 이번 매각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 사업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성장동력을 보유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계열사와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토막뉴스

- 응진코웨이는 2월 27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정윤종 상무보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제4대 이사장으로 남선우 이사장을 선출하고 3월 9일 취임식을 가졌다.